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5.12.17

DEC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471.00원 (-2.7원)

KOSPI

3,999.13 (-91.46, -2.24%)

KOSDAQ

916.11(-22.72, -2.42%)

국고채 10년 금리

3.313(-0.012%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CrediVille/ESG	EU 지속가능규제 간소화 추진 [김상만]
실전 퀀트	빅테크 하락, 계절성 영향 크다 [이경수]

기업분석

KT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호재 반영 들어갑니다 [김홍식]
삼성전자	기지개 켜는 대장주 [김록호]
이노시뮬레이션	IPO주관사 업데이트: 2026년 XR 방산 솔루션 본격 성장 전망 [한유건]

산업분석

방위산업	SpaceX IPO 가능성 부각: 우주 모멘텀과 방산주 점검 [채운샘]

Weekly

제약바이오 Biweekly	멀미가 날 때는 먼 곳을 봐야한다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 준비) [김선아]

글로벌리서치

로빈후드(HOOD.US)	HOOD-SIG JV 관련 코멘트 [고연수]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KT, S-Oil, 이수스페셜티케미컬, 파라다이스, 지역난방공사, 한국단자, 아이에스동서

세아홀딩스, 인투셀

하나증권

2025년 12월 17일 Global Asset Research

CrediVille/ESG

EU 지속가능규제 간소화 추진

Credit/ESG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앞만 보고 뛰는 놈들 따라잡기

2025년 12월 9일 EU집행위원회, 유럽연합이사회, 유럽의회가 옴니버스(Omnibus I) 패키지에 잠정 합의했다. 옴니버스 패키지('25.2.26 최초 발표)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및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부담 완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EU 택소노미 등 주요 규제의 적용 시기 연기 및 의무 대폭 완화가 담긴 패키지 법안이다. 그간 지속가능성과 환경규제에 엄격한 기준을 선도하던 EU의 정책기조가 산업 경쟁력 확보 및 행정 부담 완화로 선회되는 과정에 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옴니버스 패키지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및 실사 규제가 다른 경쟁국과 동떨어져 EU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규제 일변도로 관철하던 EU의 태도가 변화된 데에는 주요 강대국의 보호무역 심화, 러·우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 증대와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EU 집행부는 이 법안을 통해 규정, 지침에서 상호 간의 중복된 의무를 간소화하며, EU 역내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의 행정 보고 부담을 대기업의 경우 25%까지, 중소기업의 경우 35%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문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CSRD는 기존 비재무정보 보고 지침(NFRD)을 적용받지 않는 대기업 및 EU 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의 보고 시행시기를 연기하고 의무 보고 대상 기업 수를 80%까지 축소하였다. 또한, 2026년 6월까지 예정되었던 산업별 개별 공시 기준 도입을 철회하여 규제 부담을 대폭 축소한 것 또한 눈에 띄는 점이다. CSDDD와 관련해서 기업들은 기후변화계획에 대한 채택 및 이행에 대한 의무가 삭제되었다. 또한, 공급망 거래처 실사의 범위를 직접적 거래 관계가 있는 자회사 및 협력사로만 제한하여 과도한 정보 요청을 방지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한국정부가 가장 신경쓰고 있으며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도 가장 크게 부담이 되는 CBAM 관련 변화는 면제 기준의 변경, 배출량 계산 간소화, CBAM 인증서 구매 의무 연기이다.

CBAM 면제 기준은 기존 150유로 미만의 수입 배송에 한정하여 적용되었던 것이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을 수입하는 소규모 업체 및 개인에게는 연간 50톤 미만의 물품에 대해 CBAM 의무가 면제하도록 확대 적용된다. 또한, 분기별 인증서 의무 구매 비율 경감으로 수입업자가 해당 연도 초부터 수입한 상품에 내재된 배출량의 최소 80%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보유하도록 규정했었으나, 이를 50%로 경감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증서 구매 의무 시행을 2026년 1월에서 2027년 2월로 연기하였다.

해당 변경으로 인한 주요 수혜자는 소량의 CBAM 제품을 수입하는 약 18만 2천여개의 EU 역내 수입업체로 예상되며 EU 역외 기업의 경우 현 시점에서 해당 변경에 따른 실질 부담 완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Analyst 김상만 credinal@hanafn.com
RA 김기범 kbkim1@hanafn.com

빅테크 하락, 계절성 영향 크다

실전 퀀트 | 2025.12.17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美 빅테크 하락, 계절성 영향력 크다고 보는 시각

AI 빅테크 기업(한국 반도체 포함), 12월 마지막 세일

- 글로벌 빅테크들은 AI 기술 확대 등의 중장기 성장을 위한 긴 여정 중, 다만 과도한 투자 규모 및 크레딧 등의 이슈로 투자 지연, 자금 회수 지연 등 듀레이션(자금 회수 기간) 증가 상황
- 듀레이션 증가는 그 자체로도 가격 하락 요인이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이 시중금리 상승 시기에는 더 큰 변동성을 야기하는 이론적 배경에 집중(채권가격 변화는 = - 듀레이션 X 시장금리 변화)
- 해당 우려는 새로운 이슈라기보다 빅테크 주가는 이미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 중인 단계
- 오히려 최근 오라클 및 브로드컴 실적 발표 후 빅테크 기업들의 내년 GPM(전망치) 훼손은 제한적, 오히려 증가된 기업도 존재(알파벳, 팔란티어, TSMC 등)
- 결국, 추후 분위기 반전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의외로 이론적 논리를 벗어난 '계절성' 분석이 적합할 수 있음(구조적 AI 비관론은 아니라는 가정)
- 현재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1개월 낙폭과대 컨셉 최상위에 포진되어 있는데, 해당 팩터(스타일)는 12월에 그다지 좋지 못한 성과를 보이는 계절성이 있음('17년~현재)
- 이는, **1) 중장기 투자자(기관 등)들의 기존 성과의 수익 배분을 위해 차익실현(매도) 수요 증가, 2) 빅테크 주가 고점 물타기 및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 최근 급락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 주식 양도세 절감을 위해 오히려 손절(매도) 수요 증가** 등이 이유
- 주가 낙폭과대(1개월) 종목군이 1월에 반등하는 경향도 양도세 기준일(12.31일) 변경으로 해당 이슈가 소멸되는 시기이고 새로운 기대감을 매수로 반영할 수급이 몰리는 시기가 연초이기 때문
- 게다가 **빅테크 특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가 눌림목 전략(1년 주가 과열 + 1개월 주가 낙폭과대의 멀티 팩터) 성과는 계절성 측면으로도 연말보다는 연초인 1~2월 성과가 개선되는 흐름이 뚜렷**
- 한편, 과거 주도주가 3년 이상 못간다는 속설은 일리가 있음, 과거 '09~12년 자동차 및 '23~25년 전기장비 및 방산, 조선 등이 최대 3년 주도 업종 기록
- 올해 주도주 1년차인 반도체 및 유틸리티, 기계 등은 추가 주도주 지위 가능성이 있는 셈(12월 계절성 측면 저점 매수 유효)

2025년 12월 17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KT (030200)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호재 반영 들어갑니다

BUY (유지)

목표주가(12M)	70,000원
현재주가(12.16)	54,2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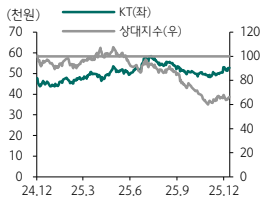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3,999.13
52주 최고/최저(원)	58,400/43,800
시가총액(십억원)	13,659.6
시가총액비중(%)	0.39
발행주식수(천주)	252,021.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83.0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9.5
외국인지분율(%)	49.00
주요주주 지분율(%)	
현대자동차 외 1 인	8.07
국민연금공단	7.67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28,247.3	27,870.7
영업이익(십억원)	2,560.0	2,211.4
순이익(십억원)	1,878.0	1,579.1
EPS(원)	7,007	5,800
BPS(원)	72,016	75,286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26,376.3	26,431.2	28,704.8	28,887.0
영업이익	1,649.8	809.5	2,530.0	2,199.3
세전이익	1,324.1	584.7	2,566.6	2,218.1
순이익	1,009.9	470.3	1,811.0	1,591.0
EPS	3,887	1,850	7,186	6,313
증감율	(19.61)	(52.41)	288.43	(12.15)
PER	8.85	23.70	7.54	8.59
PBR	0.52	0.67	0.76	0.73
EV/EBITDA	3.41	4.31	3.62	3.54
ROE	6.05	2.85	10.74	8.89
BPS	66,498	65,177	71,260	74,416
DPS	1,960	2,000	2,400	3,80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투자의견 매수, 12개월 목표가 70,000원 유지, 이제 매수 서두르세요

KT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를 유지한다. 1) 과징금 부과 등 해킹 관련 악재가 남아 있긴 하나 이미 잘 알려진 악재이고, 2) 신임 CEO가 확정됨에 따라 2026년 밸류업 정책 발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며, 3) 3차 상법 통과로 자사주 의무 소각 법제화가 이루어질 시 사실상 대표 수혜주이고, 4) 배당 분리 과세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4월부터 대폭 인상된 분기 배당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여 강한 매수세 유입이 기대되며, 5) 2026년 기대배당수익률 및 최근 2년간 배당금 증가분을 감안하면 여전히 과도한 저평가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일 CEO 선임을 계기로 KT 밸류업 정책 정상화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하루라도 빨리 매수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판단이다.

2026년 4월을 타겟으로 한 매매 전략 수립 설정을 추천, 7만원 이상 형성 전망

12월 16일 KT 신임 CEO가 확정되었다. 투자가들의 관심은 경영 정책 변화 가능성, 특히 밸류업 정책에 집중될 것인데 사실상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과거 이력 및 언급/행보를 감안하면 그렇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KT 경영진 교체에 따른 리스크 요인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반면 신임 경영진 취임에 따른 밸류업 정책 강화 가능성에 대한 주가 반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인 한도 소진 및 자사주 의무 소각 법제화 이슈로 2026년 DPS 큰 폭 상향 가능성이 높은데 주가 반영 폭은 아직 미미하기 때문이다. KT DPS가 2024년대비 2026년 9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주가 상승 폭은 50%에 불과한 상황이다. 아직 최소한 40% 이상의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 과거 2024년 하반기~2025년 상반기 KT 주가 흐름, 2025년 상반기 LGU+의 주가 흐름을 참조하면 그렇다. 2026년 1월까진 KT DPS가 600원에 불과하겠지만 2026년 4월엔 KT DPS가 900원까지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과거 경험을 돌이켜보면 분기 배당금 상향 조정 이전부터 KT 주가가 탄력적인 상승을 나타냈다. 2026년 5월까지 KT 7만원 돌파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주주 환원을 전액 배당금으로 지급할 전망,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해소될 것

2025년 KT 주주환원수익률은 SKT와 LGU+ 대비 1~2% 가량 높게 형성되었다. 그만큼 저평가되었다는 점인데 가장 큰 이유는 외인 한도 소진 문제로 LGU+와 달리 자사주를 당장 소각하지 못한다는 약점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주주 환원을 전액 배당금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이슈는 소멸될 전망이다. 주주환원금액 전체를 투자가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배당 분리 과세 적용으로 세후 수익률은 더 높아질 것이다. 급격한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예상된다. 향후 시중 금리 인하로 세전 기대배당수익률 5% 수준까지 KT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면 76,000원까지도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2025년 12월 17일 | 기업분석_Preview

삼성전자 (005930)

기지개 켜는 대장주

BUY (유지)

목표주가(12M) 155,000원(상향)
현재주가(12.16) 102,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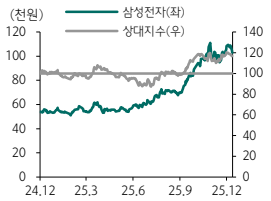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3,999.13
52주 최고/최저(원)	111,100/51,000
시가총액(십억원)	608,538.8
시가총액비중(%)	18.45
발행주식수(천주)	5,919,637.9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2,610.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203.0
외국인지분율(%)	52.11
주요주주 지분율(%)	
삼성생명보험 외 15 인	19.84
국민연금공단	7.75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327,369.7	389,186.5
영업이익(십억원)	38,828.0	83,242.0
순이익(십억원)	38,630.8	72,135.7
EPS(원)	5,585	10,514
BPS(원)	63,050	72,675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258,935.5	300,870.9	332,754.5	438,222.8
영업이익	6,567.0	32,726.0	41,824.6	112,819.4
세전이익	11,006.3	37,529.7	47,996.6	117,991.1
순이익	14,473.4	33,621.4	39,363.5	92,699.8
EPS	2,131	4,950	5,837	13,763
증감율	(73.55)	132.29	17.92	135.79
PER	36.84	10.75	17.95	7.61
PBR	1.51	0.92	1.68	1.40
EV/EBITDA	9.96	3.60	6.78	3.28
ROE	4.14	9.03	9.77	20.35
BPS	52,002	57,930	62,431	74,751
DPS	1,444	1,446	1,465	1,465

Analyst 김록호 roko.kim@hanafn.com
RA 김영규 kyg1019@hanafn.com

4Q25 Preview: 메모리 가격 강세로 전망치 상향

삼성전자의 25년 4분기 매출액은 93.0조원(YoY +23%, QoQ +8%), 영업이익은 18.3조원(YoY +182%, QoQ +50%)으로 전망한다. 당초 전망치를 상향하는 주요인은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폭이 예상보다 크기 때문이다. 서버 중심의 주문 강도가 매우 강한 상황으로 DRAM의 Blended ASP 상승폭을 31%로, NAND는 18%로 상향한다. 메모리 부문의 영업이익은 15.4조원으로 전분기대비 97% 증가할 전망이다. DRAM 영업이익률은 50%를 돌파, NAND 부문도 2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비메모리 부문은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적자가 전망된다. 주요 거래선향 SoC 공급 증가로 가동률은 회복되지만, 불안정한 수율로 인해 실적 개선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MX 부문의 실적은 기존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메모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한 원가부담과 제품 믹스 때문이다. VD/DA 부문도 수요 둔화 및 관세 영향 등으로 인해 전분기대비 감익이 예상된다.

2026년 실적 재차 상향

삼성전자의 2026년 매출액은 438조원, 영업이익은 113조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2%, 169% 증가할 전망이다. 메모리 부문의 가격 강세가 전사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서버향 DRAM 수요는 AI발 데이터 사용량의 증가 및 교체주기 도래 등으로 인해 중장기 가시성을 확보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버향 생산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이로 인해 PC 및 모바일향 공급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전방위적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 상향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주요 DRAM 3사 중에 삼성전자가 일반 DRAM CAPA를 증설할 수 있는 여력이 상존하기 때문에 추가 공급에 따른 실적 상향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ASIC향 HBM 수요가 유의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삼성전자의 2026년 HBM 매출액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추가 고객 확보시에는 업사이드 여력이 상존한다.

여전히 저평가 영역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55,000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2026년 영업이익을 기존대비 18% 상향한 것에 기인한다. 삼성전자의 2026년 기준 PER 7.6배, PBR 1.4배로 여전히 저평가 영역이다. 금번 DRAM 싸이클이 일반 DRAM의 가격 상승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HBM 수요처 다변화로 인해 해당 매출액 증가폭이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면 저평가 받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AI 관련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이라면, 저평가 매력이 더욱 돋보일 수 있다.

2025년 12월 17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이노시뮬레이션 (274400)

IPO주관사 업데이트: 2026년 XR 방산 솔루션 본격 성장 전망

Not Rated

현재주가(12.16) **3,83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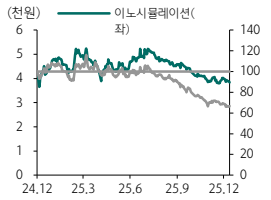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916.11
52주 최고/최저(원)	5,240/3,790
시가총액(억원)	34.8
시가총액비중(%)	0.01
발행주식수(천주)	9,086.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8.2
60일 평균 거래대금(억원)	0.1
외국인지분율(%)	1.14
주요주주 지분율(%)	
조준희 외 8 인	23.70
인라이트벤처스 외 4 인	10.97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억원)	N/A	N/A
영업이익(억원)	N/A	N/A
순이익(억원)	N/A	N/A
EPS(원)	N/A	N/A
BPS(원)	N/A	N/A

Stock Price



Financial Data (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139	164	195	93
영업이익	(2)	(18)	(2)	(48)
세전이익	(14)	(32)	(11)	(60)
순이익	(12)	(39)	(2)	(66)
EPS	(203)	(582)	(34)	(842)
증감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PER	0.0	0.0	(492.9)	(5.3)
PBR	0.0	0.0	4.6	1.6
EV/EBITDA	0.0	0.0	23.7	0.0
ROE	(16.5)	(25.8)	(0.9)	(30)
BPS	1,183	2,173	3,647	2,808
DPS	0	0	0	0

Analyst 한유건 hyg0617 @hanafn.com
RA 손호성 hss93@hanafn.com

방산/모빌리티 XR 솔루션 전문 기업

이노시뮬레이션은 2023년 7월 상장된 XR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디지털 트윈기반 가상훈련 솔루션(Virtual Training)과 자율주행 기술 안정성 및 신뢰성 평가 시스템 스마트모빌리티 시뮬레이터(Virtual Testing) 사업을 영위한다. 주요 고객사는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KAI, 완성차업체 및 부품 업체들이며 2025년 3분기 기준 사업부별 매출 비중은 가상훈련 83%, 스마트모빌리티 17%이다

가상훈련 솔루션: 구조적 성장 전망

핵심 성장 동력은 XR 가상훈련 솔루션이 될 전망이다. XR 가상훈련 시스템은 실제 고위험/고비용 훈련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체가 가능해 방산·우주·항공 산업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복합 전술환경 훈련, 도입 장비의 고도화, 플랫폼 증가에 따라 주요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미 국내 주요 고객사들의 K9 자주포, K2 전차, TA-50 항공시뮬레이터 등과 Spec-in 되어 다수의 국방 수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민수, 철도, 중장비, 차량 자율주행 검증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육군, 해군, 공군, 특전사 등 다양한 특수전술훈련, 조종 및 지휘통제, 손상통제, 상황조치 등 다양한 XR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어, 방산 전방위적으로 솔루션 납품이 가능할 전망이다. 글로벌 안보 긴장감 지속으로 성역 없는 글로벌 방위비 예산 확대, K-방산 수요 증가, 글로벌 XR 훈련시스템 수요 확대 추세가 유지될 전망에 따라 동사의 구조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모빌리티: AI 사업 진출, 시뮬레이터 AI 검증까지 확장

이노시뮬레이션은 광주 AI 집적단지내에 대형 시뮬레이터 구축 사업에 이어 모빌리티 전장부품 AX 실증, 병렬 가상 시뮬레이션 검증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했다. 이번 사업은 약 26억 규모로, 자율주행 및 ADAS 기능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장비 구축을 목표한다. 장비 구축을 통해 300개 이상의 시나리오를 자동 생성, 병렬 실행, 결과 수집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자동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주행데이터 분석, 학습, 검증까지 수행하는 End-to-End AI 모델 검증 체계까지의 확장을 목표하고 있다. 이번 구축 사업 수주를 통해 기술력을 입증함과 동시에 AI 사업 진출의 본격화가 기대되며, 추후 정부의 AI 플랫폼&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 예산 집행이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 확대된 규모의 차기 사업 참여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매출 볼륨 확대, 흑자전환 기대

2025년 실적은 매출액 157억원(+68.8% YoY), 영업이익 -36억(적자지속)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6년은 XR 훈련시스템의 구조적 성장을 통한 매출 볼륨 확대, 신규 글로벌 프로젝트 및 스마트모빌리티 사업 추가 수주로 흑자전환이 기대된다. 국내 주요 고객사의 높은 기준에 맞춰 개발된 고난도 XR 솔루션 수출의 경우 초기 개발 대비 낮은 비용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확장성과 수익성이 높아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 성공 시 가파른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기말 수주 잔고 가이던스는 200억원 수준이다.

2025년 12월 17일 | 산업분석_Update

방위산업

SpaceX IPO 가능성 부각: 우주 모멘텀과 방산주 점검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5년 12월 16일

현대로템(064350)
BUY | TP 283,000원 | CP 181,400원

한국항공우주(047810)
BUY | TP 135,000원 | CP 108,600원

SpaceX IPO 가능성 보도로 우주산업 관심 확대

한국시간 12월 6일 SpaceX가 2026년 하반기를 목표로 IPO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이후 우주산업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SpaceX가 상장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며 최근 CFO가 IPO 성사 여부, 시기, 밸류에이션은 불확실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어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공존한다. SpaceX가 실제로 상장에 성공할 경우 1) 대형 상장 종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우주산업 내에서 밸류에이션 기준점 형성, 2) 대규모 자본 조달을 통한 우주 프로젝트의 투자/집행 속도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이슈로 촉발된 투자자들의 기대는 크게 1) SpaceX향 직/간접 납품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2) 글로벌 우주산업 관심도 제고에 따른 국내 우주 관련 기업의 재평가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여러 상장 기업들이 포진해있고 후자의 경우 국내 우주산업의 핵심 역량을 방산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관심이 방산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도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글로벌 우주개발 경쟁에 참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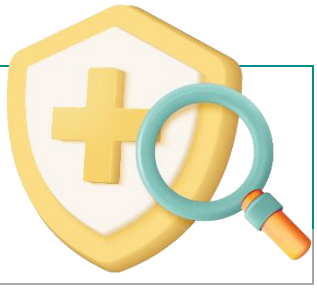
한국 우주산업 정책은 최상위 중기 계획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5년) 아래에서 이를 매년 구체화하는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1년)을 통해 제시되는 구조이다.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이라는 장기 비전을 제시하며 우주 탐사 확대, 우주 수송 완성, 우주 산업 창출, 우주 안보 확립, 우주 과학 확장이라는 5대 임무를 중심축으로 추진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한편 2025년 정부의 우주개발 예산은 약 1.0조원으로 전년도 0.8조원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됐다. 예산의 상당 부분이 우주 수송과 우주 산업 부문에 배정됐다. 우주 수송의 경우 재사용 발사체 개발, 누리호 지속 발사 등이 주요 과제이다. 우주 산업의 경우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구축, 위성 기반 서비스 산업화가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 목표와 함께 2045년 글로벌 우주산업 매출 점유율 10% 확보를 목표하고 있다.

당장의 큰 실적 수혜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중장기 기대감 유효

우주 밸류체인은 크게 발사-위성-지상체계-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발사 부문의 경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으로서 발사체 체계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재사용 발사체용 메탄 로켓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위성 부문에서는 한국항공우주가 차세대 중형위성 등 위성 개발을 수행해왔다. 지상체계 측면에서는 LIG넥스원이 위성 운용, 데이터 처리 등 지상체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본업인 방산 대비 우주 관련 매출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 실적 모멘텀으로 직결되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인 만큼 중장기 수주 확대와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은 열려 있다. 따라서 SpaceX IPO처럼 섹터 관심도를 끌어올리는 이벤트가 긍정적으로 지속될 경우 국내 관련주로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Analyst 채운샘 unsam1@hanafn.com

하나 Biweekly 제약/바이오(12월 중간)



제약바이오 Biweekly | 2025년 12월 17일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RA 유창근 changkeunyoo@hanafn.com

멀미가 날 때는 먼 곳을 봐야한다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 준비)

1) 12월 중간 제약/바이오 산업 점검

- 어지러운 연말 장세, 장기적인 모멘텀에 집중하면 저가 매수 기회. 11월 에이비엘바이오의 기술이전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하게 상승하는 기조를 보였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12월 초에 펩트론의 기술평가기간을 10개월 추가한 정정 공시, 알테오젠의 ALT-B4 관련 독일 가처분 명령 및 미국에서 제조방법특허에 대한 무효심판(IPR) 청구, 한올바이오파마의 바토클리맙 상업화 논란 등의 부정적인 소식이 이어지는데, 기다리는 기술이전 소식은 부재하니 대부분의 주요 종목들 상승세가 꺾인 상태이다. 이런 분위기 하에 오스코텍이 아델과 공동개발한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 소식이 있었으나, 시장은 셀온으로 반응했다. 가만히 살펴 보면 기술 반환, 임상 실패, 분쟁 패소 등 회복이 불가능한 명확한 악재는 없었다. 조금만 기다리면 당면한 문제는 해소될 것이고, 양도세 이슈, 장기 휴가 등 연말이라는 특수한 시기라는 것을 고려하면 변동성이 심한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이다. 평소 관심 있던 기업들의 장기적인 모멘텀을 다시 한 번 살펴 보자.
- 1월 JPM Healthcare Conference를 준비할 때. 제약/바이오 섹터의 가장 큰 연례 행사 중 하나인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2026년1월12일-15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다.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국내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디앤디파마텍이다. 발표는 하지 않고 초대만 받아 참석하는 기업들도 다수 존재하지만, 주가에는 일시적인 반응만 일으킬 뿐이므로 별도로 홍보하지 않는 기업이 대다수임을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이 컨퍼런스에는 Lilly, J&J, MSD 등 빅파마들과 주요 글로벌 바이오텍이 참여하여 '26년 전망과 계획을 발표한다. 이들과 파트너쉽을 맺고 있거나, 경쟁 관계이거나, 전략과 부합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들(잠재적 L/O)은 미리 알아두면 좋을 듯 하다. 이번 Biweekly 도표 17번에 주요 기업만 골라내어 정리해 두었다.
- 연간 전망 테마 중 유전자 치료제 추가. 우리는 연간 전망과 지난 Biweekly에서 '26년 주목할 테마로 뇌질환과 ADC를 꼽은 바 있다. 여기에 유전자 치료제를 추가한다. 12월9일에 보여준 Wave Life Science의 siRNA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는 비록 1상이고 중간 결과이긴 하나, 기존의 펩타이드 비만치료제 갖는 문제인 짧은 반감기(3개월 간 1회 투여), 근육 감소(체지방 및 내장지방은 감소하고 근육은 증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Wave Life Science와 가장 유사한 기술 형태와 적응증으로 개발 중인 기업은 올릭스이다. 기술 형태는 다르지만, 알지노믹스도 RNA 편집 및 교정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플랫폼을 보유하여 Lilly에 기술이전 후 추가 L/O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생산자인 에스티팜도 주목할 만 하다.

2) 12월 추천 종목

- 12월 제약사 Top pick: 한미약품.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MSD가 25년 내내 임상2b상을 진행한 MASH 치료제 에피노페그듀타이드에 대해 어떠한 톤을 전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럽 8개국 중 이탈리아와 체코 외에 국가에서는 임상을 끝낸 것으로 보이고, 12월29일이 Clinical Trial 상의 공식적인 종료일이다. 시간상 Top line을 발표하진 못하지만, MSD가 파이프라인에 대해 갖는 기대감과 '26년 R&D 발표 여부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12월 바이오텍 Top pick: 알테오젠, 인투셀. 지난 번 Biweekly에 추천한 기업들에 대한 의견을 유지한다. 1) 알테오젠은 특허 분쟁 발생으로 주가가 손실을 입은 상태이다. 분쟁은 리포트로 분석한 바와 같이 중요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므로 기술이전이 발생하면 모든 불안을 불식시키고 주가는 충분히 회복될 것이라 전망한다. 지금 이 분위기를 매수 기회로 삼고, 1월까지 이어질 이벤트를 기다려 봄직하다. 2) 인투셀은 파트너사인 삼성에피스홀딩스가 파이프라인에 링커가 적용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거나, 마일스톤 수령이나 프로덕트 딜로의 변경 계약 공시가 있는 경우 시장의 큰 주목을 받을 것이다. 총 5개 타겟에 대해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으므로, 에피스와의 추가 타겟에 대한 개발 계획도 기대할 만 하다.

2025년 12월 16일 | Global Equity

로빈후드(HOOD.US)

HOOD-SIG JV 관련 코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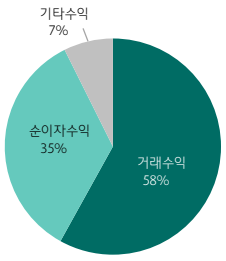
미국

TP(컨센서스)	153.5 USD
CP(12.15)	115.3 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ASDAQ GS
산업 분류			금융
주요 영업			캐피탈 시장
홈페이지			www.robinhood.com
시가총액(십억USD)			103.8
시가총액(조원)			153.2
52주최고/최저(USD)			153.8599/29.66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12.01
FMR			7.09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5.9)	58.8	166.8
상대	(7.1)	44.7	154.6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	1,865	2,951	4,528	5,638
영업이익	(536)	1,054	2,129	2,911
순이익	(541)	1,411	1,835	2,286
EPS(USD)	(0.6)	1.6	2.0	2.5
EPS(YOY, %)	(47.9)	(355.7)	30.8	23.5
ROE(%)	(7.9)	19.2	21.4	22.5
PER(배)		24.4	56.5	45.7
PBR(배)	1.7	4.1	11.6	9.5
배당률(%)	0.0	0.0	0.0	0.0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고연수 yeonsookoh@hanafn.com

11/25 Susquehanna International Group(SIG)와 합작법인 설립 발표

11/25 로빈후드는 Susquehanna International Group(SIG)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Miami International Holdings(MIAX)의 자회사인 MIAX Derivatives Exchange(MIAXdx) 지분 90%를 인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MIAX는 잔여 지분 10%을 유지할 예정이다.

MIAXdx는 과거 LedgerX로, 2023년 FTX 파산 절차 과정에서 MIAX가 5,000만달러에 인수한 바 있다. DCM(designated Contract Market), DCO(Derivatives Clearing Organization), SEF(Swap Execution Facility) 등 파생상품거래·청산 관련 핵심 라이선스를 보유한 CFTC 인가 거래소 및 청산소이다.

로빈후드는 그동안 Kalshi, Forecastex 등 외부 거래소를 통해서 예측시장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이번 JV를 통해 예측시장 계약(event contract)을 직접 상장·청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 **인수는 2026년 1분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거래소는 2026년 중 영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JV를 통해 수익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유의미

이번 JV의 전략적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1) 거래소 지분 인수를 통해 상품 설계·상장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로빈후드는 고객에게 제공할 예측시장 계약을 직접 설계하고 상장할 수 있게 되면서, 상품 라인업 확장 및 사업 주도권 강화가 기대된다. **2) SIG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초기 시장 형성에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했다. 예측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글로벌 마켓메이커의 참여는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고 시장 여건을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MIAXdx가 이미 거래소 라이선스와 실질적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JV 출범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 부담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밸류체인 확보에 따라 수익성 개선 기대

예측시장은 로빈후드가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핵심 사업부문이다. 출시 후 1년만에 약 90억건의 계약이 거래되었으며, 이용자 수는 100만명 수준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현재 로빈후드는 예측시장 거래에 대해 계약당 1센트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JV를 통해 예측시장 생태계가 확대될 경우 단순 중개를 넘어 밸류체인 내에서의 역할과 수익 귀속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측에서 발표한 11월 월간 데이터에 따르면 주식, 옵션, 암호자산 거래대금이 각각 전월대비 37%, 28%, 12% 감소했으나, 예측시장 계약 거래량은 약 30억건으로 전월대비 20%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12/15	108,900	102,800	-5.60%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KT (030200.KS)	12/15	52,600	54,200	3.04%	• 해킹 관련 비용, 향후 실적 추정치에 상당 부분 반영된 상태 • 기대 배당수익률, 세전 7.5%, 배당금 2천만원 이하 세후 6.3%로 대단히 매력적인 수준
S-Oil (010950.KS)	12/15	81,600	83,800	2.70%	• 미국 내 정제설비 폐쇄 증가 감안시, 타이트한 수급 환경 유지되며 정제마진 강세 전망 • 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로 인해 OSP 안정화 가능성 높아
이수스페셜티케미컬 (457190.KS)	12/15	62,900	60,000	-4.61%	• 전고체 배터리 소재 '황화리튬' 대량 제조 가능한 국내유일업체 • 전고체 배터리, 휴머노이드 산업 개화와 맞물리며 조기 상용화 기대감 상승
파라다이스 (034230.KS)	12/15	18,090	17,480	-3.37%	• 3Q25 Review 매출액 2,881억원(YoY +8.0%), 영업이익 395억원(YoY +9.0%) 기록 • 호텔 인수 및 소프트 오픈을 통해 가파른 이익 성장 기대
지역난방공사 (071320.KS)	12/15	108,400	111,600	2.95%	• 3Q25 Review 매출액 7,582억원(YoY +29.6%), 영업이익 894억원(YoY +209.6%) 기록 • 열요금 변동, 판매량 증감, 원가 변화고 세 가지 변수 모두 양호한 방향 나타내는 중
한국단자 (025540.KS)	12/15	69,900	69,400	-0.72%	• 자동차의 전장화/전동화에 따른 수혜와 고객사 다변화 기대 • 하반기 미국법인 회복 및 유럽법인 호실적 지속 전망
아이에스동서 (010780.KS)	12/15	22,600	21,900	-3.10%	• 26년 4월, 3.5조원의 초대형 자체 사업 3,443세대의 경산 중산지구 분양 결정 • 지방광역시 집값 반등과 대구 미분양 감소 등 긍정적 시그널 감지
세아홀딩스 (058650.KS)	12/15	129,900	121,300	-6.62%	• 자회사 세아베스틸지주, 미국 텍사스에 항공우주 및 방산용 특수합금 공장 건설 중 • 고부가제품 판매량 확대에 따른 제품 믹스 효과로 중장기 자회사 실적 모멘텀 지속 전망
인투셀 (287840.KQ)	12/15	64,400	64,900	0.78%	• 연내 파트너사와 본계약 및 26년 임상1상 중간 결과 발표에 따른 추가 L/O 기대 • BD 인력 보강, 플랫폼 세부 구성 다각화 중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45%	+2.62%p	+73.22%	+19.92%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아이에스동서 (010780.KS)	12/15	22,600	21,900	-3.10%	• 26년 4월, 3.5조원의 초대형 자체 사업 3,443세대의 경산 중산지구 분양 결정 • 지방광역시 집값 반등과 대구 미분양 감소 등 긍정적 시그널 감지
한국단자 (025540.KS)	12/8	66,700	69,400	4.05%	• 자동차의 전장화/전동화에 따른 수혜와 고객사 다변화 기대 • 하반기 미국법인 회복 및 유럽법인 호실적 지속 전망
케이엠더블유 (032500.KQ)	12/1	15,110	15,230	0.79%	• 트럼프 600MHz 광대역 주파수 할당 촉구에 주목, 2026년 대규모 투자 기대 • 중국 부품 제재 강화, 오픈랜 확대 등의 영향으로 미국 수출 양호한 흐름 지속
지역난방공사 (071320.KS)	11/17	105,200	111,600	6.08%	• 3Q25 Review 매출액 7,582억원(YoY +29.6%), 영업이익 894억원(YoY +209.6%) 기록 • 열요금 변동, 판매량 증감, 원가 변화고 세 가지 변수 모두 양호한 방향 나타내는 중
삼성E&A (028050.KS)	11/3	25,950	24,900	-4.05%	• CIS 국가들(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젠 등)에서 가스 등의 프로젝트 참여 예정 • 26년 사우디 가스(Khafji, 20억달러), 카타르 화학(40억달러) 신규 수주 기대
SK하이닉스 (000660.KS)	10/20	465,500	530,000	13.86%	• 3Q25 Review 매출액 24.5조원(YoY +39.0%), 영업이익 11.4조원(YoY +62.0%) 기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전기 (009150.KS)	10/13	210,500	255,000	21.14%	• 컴포넌트 사업부 외에도 패키지 및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우상향 가시성 확보 • 고부가 AI 서버 및 전장향 MLCC 공급 확대로 연간 실적 호조 전망
하이브 (352820.KS)	10/13	272,500	296,000	8.62%	• BTS, 내년 봄 신보 발매를 시작으로 연중으로 대규모 투어 진행 예정 • 글로벌 주요 거점 지역에서 다양한 현지 아티스트 데뷔를 준비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 기대
삼성전자 (005930.KS)	10/1	83,900	102,800	22.53%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KB금융 (105560.KS)	10/1	115,500	123,700	7.10%	• 경쟁은행 대비 확대되었던 PBR gap이 좁혀지면서 가격 매력 재부각 • 25년 총주주환원 규모 총 3.01조원으로 총주주환원율 약 53% 수준
한국금융지주 (071050.KS)	10/1	145,000	164,000	13.10%	• 국내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로 호실적 기대 • 하반기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이후 추가적인 수신 기반 확대 전망
S-Oil (010950.KS)	10/1	62,400	83,800	34.29%	• 미국 내 정제설비 폐쇄 증가 감안시, 타이트한 수급 환경 유지되며 정제마진 강세 전망 • 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로 인해 OSP 안정화 가능성 높아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4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1.02%	-5.30%p	+57.17%	+3.87%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AI테크 TOP10 (485540.KS)	2025.07.22	12,290	14,615	18.92%	•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I 관련 핵심기업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종목. 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AI를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Magnificent7와 AI5 기업들에 집중하는 테마 ETF • 상용화의 영역 확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버린 AI, 신제품 교체 수요들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는 상황. 중국 수출 규제 완화와 트럼프 정부의 AI 육성 정책 모멘텀도 긍정적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7,770	36.69%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WON 미국빌리어네어 (489290.KS)	2025.02.03	13,065	15,695	20.13%	• 미국 최상위 억만장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로 구성하는 패시브 ETF. 미국에 상장된 주요 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 Tech, 임의소비재, 커뮤니케이션, 금융, 필수소비재의 5개 업종이 포트폴리오의 90% 이상 비중을 차지. 브로드컴,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50개 우량 종목으로 구성
에셋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407830.KS)	2024.09.25	9,690	16,775	73.12%	• 대체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한 해외 플랫폼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액티브 ETF • 전문화와 분업화 가운데 각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는 기업들을 편입. 테슬라와 구글, 샤오미, 마이크로소프트, TSMC, 텐센트 등이 주요 구성 종목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49.14	352.90	8.21%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SHLD (미국 방산 기술 주식)	2025.06.16	58.83	64.41	9.48%	• 전통 방산기업들과 더불어 AI, 증강현실/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사이버 보안, 연료시스템 등 첨단 군사 기술에 중점을 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 각국 정부들이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수혜 전망. 미 국방부의 사이버보안 및 디지털 전환 정책에 힘입어 견조한 수급 모멘텀 기대
PAVE (미국 인프라 주식)	2025.11.124	38.07	49.03	5.55%	• 미국 인프라 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인프라 테마 ETF. 산업재를 중심으로 소재, 건설장비, 운송,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편입하여 구성 • 금융시장 환경 변화 가운데 향후 정책 모멘텀 반영 가능성. 정치적 관점에서도 리쇼어링은 양당 모두 선호하는 방향성. 품목별 관세의 연속성 고려시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인프라 수요 꾸준히 증가 전망
QGRO (퀄리티 성장주)	2025.01.03	101.56	114.11	12.36%	• 성장성과 퀄리티를 함께 갖춘 중대형주로 구성된 ETF • 경제 연착륙 시나리오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성장 모멘텀에 대한 관심 증가. FOMC와 펀더멘털 퀄리티에 대한 해석이 변화하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견고한 주가 흐름을 유지하며 상대 우위 보여줄 전망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 중국 11월 소매판매 (1.3%, 10월 2.9%) ▪ 중국 11월 광공업생산 (4.8%, 10월 4.9%) ▪ 중국 11월 누적 고정자산 투자 (-2.6%, 10월 -1.7%)	▪ 일본 12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P (E --, 11월 48.7P) ▪ 유로존 12월 HCOB 제조업 PMI P (E --, 11월 49.6P) ▪ 미국 12월 NAHB 주택시장지수 (E --, 11월 38.0P) ▪ 미국 11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 (E 38K, 10월 -) ▪ 미국 11월 실업률 (E 4.4%, 10월 -)	▪ 일본 11월 수출/입 (E --/--, 10월 3.6%/0.7%)	▪ 유로존 12월 기준금리 (E 2.00%, 10월 2.00%) ▪ 미국 11월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 (E --/--, 10월 --/--)	▪ 일본 11월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소비자물가 (E --/--, 10월 3.0%/3.0%)	
				▪ ECB 12월 통화정책회의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 미국 10월 내구재 주문 (E --, 9월 0.5%) ▪ 미국 11월 광공업생산 (E 0.1%, 10월 0.1%)	▪ 미국 1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E --, 11월 88.7P)		▪ 일본 11월 실업률 (E --, 10월 2.6%)	
				▪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